즉시 배포용: 2020년 2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에서 혐오, 분열, 반유대주의를 없애기 위한 '노 헤이트 인 아워 스테이트' 캠페인 시작**

*주지사의 예산 제안에 미국 최초의 국내테러법 포함*

*혐오 범죄에 취약한 종교 비영리 단체에 **2,500**만 달러 투자*

*예산은 뉴욕의 학생을 위한 다양성과 관용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포함*

*예산에 따라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 지원에 **200**만 달러 투자합*

*신규 웹사이트 및 청원 시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혐오, 분열, 반유대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에 종합 제안의 일환으로 '노 헤이트 인 아워 스테이트(No Hate in Our State)'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국내 최초의 테러법 통과, 혐오 범죄에 취약한 종교 비영리 단체에 2,500만 달러 투자, 뉴욕의 학생들을 위한 다양성과 관용에 대한 교육 과정 제공, 뉴욕주 경찰의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 지원에 200만 달러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지사는 해당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뉴욕 주민들이 지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캠페인 청원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뉴욕주와 미국에 번지고 있는 반유대주의와 혐오 범죄의 유행은 일종의 바이러스입니다. 저는 뉴욕이 이것에 면역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저는 반유대주의는 뉴욕에 뿌리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는 폭력을 억제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며 혐오의 원인과 끔찍한 결과에 대해 우리의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담한 입법 조치를 취하여 증가하고 있는 혐오의 불길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혐오 범죄 및 반테러법(Hate Crime Anti-Terrorism Act) 통과**

뉴욕에서 반유대주의와 다른 차별적 공격의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주지사는 혐오 때문에 발생하는 대규모 폭력을 포함하는 국내 최초의 국내 테러법을 제안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A-1급 중범죄를 신설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실제 또는 인지 인종, 피부색, 출신국, 가계,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 종교, 종교 행위, 연령, 장애 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대량 살상하는 경우 최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효과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테러 범죄로서, 기타 테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주지사가 2019년 8월 15일 처음으로 발표하였으며, 주지사의 2020 시정방침(State of the State) 및 2021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의 핵심 사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혐오 범죄에 취약한 단체 보호**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에 따라 혐오 범죄에 취약한 종교 및 비영리 단체에 2,500 달러가 추가로 투자되고, 예배 장소까지 포함하도록 적격 조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자금은 이러한 단체가 혐오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주정부가 지역사회 혐오 범죄 보호 기금 프로그램(Securing Communities Against Hate Crimes Grant Program)을 통해 마련한 4,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양성과 관용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주지사는 뉴욕의 학교가 시민적 가치와 뉴욕주의 풍부한 다양성 및 종교적 자유를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추가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청(Battery Park City Authority)가 홀로코스트 유대인 유산 박물관(Museum of Jewish Heritage on the Holocaust)을 주 전역의 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장소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모든 뉴욕시 학생이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박물관을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에 자금 지원**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는 주지사가 2018년 설립한 부서로, 뉴욕주 전역에서 편견에서 비롯된 위협, 괴롭힘, 폭력 문제의 증가를 해결합니다. 2021 회계연도 예산(FY 2021 Budget)에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가 진행 중인 업무를 지원하고 폭력, 편협성, 불법 약물 판매, 테러 등 조장하는 디지털 미디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0만 달러 자금 지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이 뉴욕주 사법 정의 서비스국(NYS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및 뉴욕주 인권 부서(NYS Division of Human Rights)와 파트너십을 맺고 주 전역의 현지 법 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혐오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에 대해 교육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요 미국 유태인 단체 회장 콘퍼런스(Conference of Presidents of Major American Jewish Organizations)의 Malcolm Hoenlein 부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 지역사회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늘어나는 공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Cuomo

주지사는 미국 전역에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혐오에 맞서 싸우고 반유대주의에 사면권을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주지사가 반유대주의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우리가 직면한 위협으로부터 유대인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교육 및 책임성을 다루는 이 새로운 종합 캠페인을 시작하는 가운데, 저는 주지사를 지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유태인 의회(American Jewish Congress)의 Jack Rosen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Cuomo 주지사는 단호하게 연대를 지지할 뿐 아니라 혐오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소외된 지역사회 보호 및 미래세대 교육이라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문제에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플라움 매니지먼트 컴퍼니 주식회사(Flaum Management Company, Inc.)의 David M. Flaum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혐오 범죄의 가장 큰 동기는 두렵게 만들고 위협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뉴욕 유대인 지역사회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혐오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사태를 종식시키려는 주지사의 계획은 다각적인 전략이며 우리는 이 모든 제안이 입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미 세계 유대인 의회(World Jewish Congress North America)의 Betty Ehrenberg 총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Cuomo 주지사는 뉴욕주를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혐오와 분열에 대항하기 위해 주지사가 취한 중요한 조치들은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지사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 분투하는 세력에 맞서 주지사를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아우터스터프(Outerstuff)의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Sol Werdig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혐오 범죄가 전례 없는 속도로 계속 증가함에 따라, 뉴욕은 다른 어떤 주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조사하고 사법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는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러한 비열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대중을 안심시키는 데 필수적인 기구가 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 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려 이들이 필수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유나이티드 쥬이시 어필-뉴욕 유대인 연합(UJA-Federation of New York)의 Eric S. Goldstein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오늘 발표한 제안은 반유대주의를 비롯한 모든 혐오와의 싸움에서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비영리 단체, 학교, 예배당이 자신과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와 파트너십을 맺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대인 지역사회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유대인 지역사회 관계 위원회(Jewish Community Relations Council, JCRC)의 Michael Miller 총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만 명의 뉴욕 주민들과 함께 브루클린 브리지(Brooklyn Bridge)를 행진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발표한 제안에 이르기까지, Cuomo 주지사는 유대인 지역사회를 계속 지지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반유대주의에 맞설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 Cuomo 주지사를 지지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합 어젠다에는 교육, 집행, 보호가 포함되며,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제정되기를 고대합니다."

**반 유대주의 대항 동맹(Anti-Defamation League)의 Jonathan A. Greenblatt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유대주의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는 혐오를 기반으로 한 폭력이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행하는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혐오의 파도를 잠재우기 위한 주지사의 리더십과 그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유대인과 비영리 단체에 안전와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기 위해 7,000만 달러의 기금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오늘 소개된 이 제안은 혐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포레스트 시티 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Forest City Enterprises, Inc.) 최고 회장 겸 유대인 문화유산 박물관(Museum of Jewish Heritage) 이사회 회장인 Bruce C. Rat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음 세대가 홀로코스트(Holocaust)의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욕시 공립학교(NYC Public School) 학생들의 홀로코스트 교육을 의무화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유대인 문화유산 박물관은 Cuomo 주지사와 함께 반유대주의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편견에 맞서 싸우고 싶습니다."

**정교회 연합(Orthodox Union)의 Allen Fagin 부총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모든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리더로서 뉴욕의 입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일련의 실용적이고 고무적인 보안 제안을 통해 모든 지역사회에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전국의 기타 주정부가 따라야 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